

국 내 소 식

통상산업부

수요관리 비용효과 분석모델 2년내 개발

수요관리(DSM) 성과계량 및 비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이 2년 내에 개발된다.

통상산업부와 에너지자원기술 개발지원센터는 최근 '95년도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지원과제를 확정했다.

지원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전기분야 10개, 산업일반분야 4개, 산업공정분야 7개, 요로금속분야 2개, 건물분야 3개 등 총26개 과제이다.

이들 과제에는 1차년도인 올해 정부지원금 31억2천만원과 민간부담금 8억6천만원 등 총 39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한전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전기분야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주파 박형 자기소자 개발, 섬유기기용 고속 고정밀 주파수 변환장치 개발, 유도 전동기 시험평가 기술 개발, FA/OA용 정주력 선형 펄스모터 및 컨트롤러 개발, 전자회로식 안정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부품 및 시스템 평가방안 연구,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의 센서 감지제어시스템 개발, UPS용 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에 관한 연구, 초전도 Power Supply에 관한 연구, 1백kVA 3상 초전도 변압기 개발, DSM 성과계량 및 비용효과 분석모델 개발.

서울대 법학연구원

외국 전기제도 연구 중간발표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주요 외국의 전기사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연구」 중간발표회가 지난 4월 15일, 권영성 서울대 교수, 황하수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전력사업 주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전력사업 관련법령 및 제도의 비교분석으로 전력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전기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경영자율확대 등 전기사업법 전반에 관한 최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중간보고이다.

이날 제1부 외국법령 소개시간에는 김진식 서울대 교수 등 6명의 연구 참여교수들이 차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선진 6개국의 전기사업 관련법령을 소개하였으며, 제2부 주제발표시간에는 최송화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교수들이 전력사업의 현황, 전력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전력사업자의 특권과 의무, 전력사업의 여건변동과 법적동향 등 각 주제별로 쟁점위주의 발표를 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 및 토론시간에 참석자들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전력사업 법제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출과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전기안전제도 등에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전기의 날 기념

제15회 전기산업진흥추진대회 성황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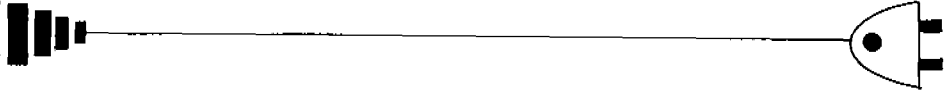
「전기의 날」기념 제15회 전기산업진흥추진대회가 지난 4월 10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한전기협회(회장:이종훈)가 주최하고 통상산업부와 한전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최초로 전기가 밝혀진 1900년 4월 10일을 기념하고 전기산업의 진흥을 촉진키 위한 것으로 통상산업부 박운서차관을 비롯 전기산업체 대표 등 8백여명의 전기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통상산업부 박운서차관은 치사를 통해 전기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원천임을 지적, 전력산업의 발전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훈 대한전기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기계의 어려웠던 과거를 교훈삼아 더욱 능동적으로 시대상황의 파고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의 선도적 역할을 금년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협회가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전기산업유공자 포상식에서 이형종 극동전선회장이 산업훈장 동탑을 수상했고 김홍도 현



대건설전무가 철탑, 송병권 한전 영등포지점장과 고인석 한전 배전처장 등이 석탑을, 동방전기공업 양우현사장이 산업포상을 각각 수상했다.

에너지관리공단, WEEA 총회에서 우수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상 수상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기성)이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에너지 효율협회(WEEA) 제2차 총회에서 「우수에너지 효율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우수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상」 수상후보로 일본의 에너지절약센터(ECCJ), 프랑스의 환경에너지관리공사(AEME) 등 각국에서 11개기관이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이 당당히 첫수상기관으로 뽑혀 세계적인 에너지효율기관으로 부상했다.

무선전화기는 충전기 겸용인 받침대를 전원이 있는 사무실, 가정내 어느 곳에 설치해도 통화에 어려움이 없다. 자동응답장치는 총 7분동안 외부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다.

화상 전송용 전화

미국 전화회사(AT & T)는 비디오 카메라나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만 하면 원하는 화상을 보낼 수 있는 특수 전화를 개발, 첫선을 보였다.

회원(사) 소식

대전지역 전기인 조찬회

- 일 자 : 1995년 4월 19일(수)
- 장 소 : 대전 사또호텔 연회실
- 토의내용 : 전기안전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안양 전기기술협의회 정기총회

- 일 자 : 1995년 4월 20일(목)
- 장 소 : 안양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 주요안건 : - '94 회계년도 사업보고
- 회칙개정
- 회장 및 임원선출:
신임회장 방신원(삼양통상)회원

안산 전기기술협회 제6차 정기총회

- 일 자 : 1995년 4월 27일(목)
- 장 소 :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
- 주요안건 : - '95년도 사업보고
- 회칙 개정
- 회장 및 임원선출 :
신임회장 박춘만(대성전기)회원

해 외 소 식

화재전용 비상통보장치

일본 오무론사는 화재발생시 경비회사 등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방기관에 자동 통보해주는 화재전용 비상통보장치(제품명 LD-11PS)를 개발해 시판에 나섰다.

이 상품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통보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한 주소·이름 등이 자동적으로 소방기관에 통보된다.

다목적 통신기

네덜란드 필립스사는 최근 팩시밀리, 복사기, 자동응답장치, 무선전화, 일반전화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통신기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제품은 좁은 사무실에 여러대의 통신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전화선 한개로 팩시밀리와 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호 통화 전환도 자동으로 이뤄진다.